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보건복지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소병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소병훈 위원장입니다. 참 민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제가 인사말에서도 했지만 21대 후반기에 농해수위원장을 하고 투표할 때 기표소 앞에 가서 인사하라고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내 얼굴 보면 찍을 걸 오히려 안 찍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반기 마감하는 데까지는 두 달여 정도 남았지만 아무리 짧은 기간이더라도 해야 할 일은 꼭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반기 보건복지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 온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비록 길지 않은 임기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오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속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정 입법조사관.

성재경 행정관.

박영록 주무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소병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말씀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먼저 소병훈 위원장님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주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것 같은데 벌써 나가시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엄격합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 목적이지만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목적과 무관한 사업, 부실한 추계, 설계 자체에 문제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청년 고용지원사업, 소득기준 없는 그냥드림사업, 의료급여 확대 등은 중동전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도 선심성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합니다.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열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이재명 정부도 10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추경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수단인 추경이 반복되고 일상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지만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총부채가 6500조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248%입니다.

추경사업의 수혜 대상자를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을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경이 비상수단인 점을 고려하고 소위에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 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하세요.

○한지아 위원 지금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수액팩, 약 포장재, 의료 소모품 공급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 식약처는 나프타 공급 협의와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처리를 하겠다며 보건의로 핵심 물품의 우선배정 요청과 규제지원 방침까지 세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정작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매우 불성실한 상태입니다. 수액팩, 약품 포장재 등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불안 품목, 수술용 장갑, 주사기 등 재고부족 일회용 용품 등의 재고 현황 및 소진 예상시점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데이터 없이 무성의한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회의를 했고 허가 지원까지 검토했다면 최소한 품목별 재고, 공급차질 예상시점, 허가 변경 필요 현황 정도는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이르면 4월부터 원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고 품목별로 재고 소진 시기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산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식약처가 국회에 요구 자료를 내지 않고 위원이 기업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식약처의 이런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중동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환자 치료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식약처를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를 본 의원실로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마치셨습니까?

○한지아 위원 예.

○위원장 소병훈 오늘 식약처는 여기에 나오지 않으셨을 텐데 식약처뿐만 아니고 정부 어느 부처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든 식약처에 연락해서 방금 한지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갈까요?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민생 여건을 조속히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증액 규모는 총 3263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먹거리와 생계,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을 위해서는 자립지원과 일경험 확대를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 아래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지원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소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 300개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2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1만 6000건 확대하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긴급돌봄과 돌봄 취약계층인 가족돌봄청년의 일상돌봄도 확대하였습니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사업에 282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청년 및 청년고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청년미래센터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3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급감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확대를 위한 추가 교육비용과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의사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3263억 원 증액된 78조 2682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부문별 규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2959억 원 증가한 20조 8808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187억 원 증가한 1조 1881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아동 및 보육 부문은 34억 원 증가한 6조 745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34억 원 증가한 2조 7646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건강보험 부문은 50억 증가한 12조 394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1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예상 대비 증가한 수급자를 고려하여 2828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 약 2000억 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하반기에 해당 금액만큼 추가적인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4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동 내역사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대응을 위한 단기 상담인력 채용 및 전산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과 관련하여 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에 신속하게 응대하도록 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산인프라 예산은 AI 고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데,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전산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20억 65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확충과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의 원활한 추진과 진료기능 제고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에 대한 보강교육과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희망자에 한하여 질의하시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애초에 있던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기로 해서.

아, 이건 또 보니까 애초의 질의 순서가 아니고 가나다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보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 보건지소 중에서 82%, 그러니까 열 군데 중 여덟 군데는 공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급감한 것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숫자가 계속 감소해 왔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맞습니다.

○**김윤 위원** 그에 따라서 예전처럼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다 배치할 수 없는 게 명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농어촌의 일차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차의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재편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소에 다 배치할 수는 없어서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단위로 통합된 그런 지소를 좀 더 운영하고 보건소에는 공공의학클리닉이라고 하는 폴리클리닉 같은 여러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원격의료나 아니면 협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강원도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도 하나의 시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 그래서 기존의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진료를 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대신 의사를 모아서 일정 지역을 순회진료, 방문진료, 통합돌봄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노인분들이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들어가는 의료비 6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사업 결과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달에 시작한 농어촌의 통합돌봄사업을 위해서도 농어촌의 소위 일차의료, 지역의료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아마 지역을 몇 가지로 특성을 유형화해서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일차의료,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주치의 중심의 제도로 개편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의료취약지 농어촌 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통합돌봄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개편하는 것과 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윤 위원**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목적은 동일합니다.

○**김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업, 그러니까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개편, 통합돌봄에서의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강화, 일차의료 시범사업, 이것을 1개의 틀에 의해서 표현되는 제도와 정책으로 개편한 복지부의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만이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있고 또 치매나 주치의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통합되게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통합되게 운영되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복지부가 사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오랫동안 여러 개의 시범사업을 그냥 시범사업인 상태로 십몇 년째 계속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이번 기회에 일차의료 부분도 정리하고 통합돌봄과 관련된 의료 부분도 정리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정리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위원장 소병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발언……

○**김예지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추경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 봤는데 이렇게 빠른 추경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요일 오후에 제출받은 자료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목요일 오전에 소위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심사 중인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 서면질의 제출, 어제까지 받은 걸 25시간밖에 안 주셨어요. 25시간 만에 잠 안 자고 서면질의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중에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냥 추정 통과를 원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보지 말고 대충 넘겨라라고밖에 읽히지가 않을 정도로,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다 표고 그리고 예결소위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야, 어제저녁인가요? 하여튼 거의 밤잠 안 자고 그것도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 표 풀 시간도 안 주시고 표를 그냥 덜렁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급합니다. 빨리해서 빨리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게 목표기는 한데, 혹시 위원장님이 다음에 추정 하시면 적어도 이렇게 25시간 만에 제출하라는 것은 거의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운영에 있어서 적당히,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아납니까? 정보접근성을 생각해서 가지고 적어도 표 풀 시간 정도는 주셔야 심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켜라’라는 메시지가 읽히지 않을 정도로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또 자료제출도 처음에는 그냥 개요서만 딱하니 와 가지고 정말 심사가 아니라, 서면에서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따질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나 아니면 예산의 세부내역이 전혀 없이 그냥 개요만 받았습시다.

세부내역을 받은 게 어제저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서 다음부터 추정이나 전체회의 진행이나 예결소위 진행 같은 것도 꼼꼼히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김예지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냥드림 코너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소득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면 그냥 가져오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차 이용은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고 드리고요. 한 2만 원 정도 상당……

○김예지 위원 어떤 인적사항을 받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름과 연락처 이런 부분이고요.

○김예지 위원 장관님도 가면 주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는 이용 대상은……

○김예지 위원 안 가시겠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가지는 않을……

가능하면 저소득층에서 생계 위험이 있으시고 긴박하게 먹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관리의 과정이 궁금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1차는 그냥 드리는 거고요, 2차 때 오시면 기본 상담을 반드시 하고……

○김예지 위원 2차 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제가 지난해에—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예결소위에서 그냥드림 코너 목적을 지적했었던 바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 긴급하게 힘드신 분들이 하는데 긴급하게 정말 힘드신 분들 중에서 더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오실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있다 그런 안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추경안 세부내역에 보면 바뀐 게 없이 그냥 센터만 150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것 외에는 똑같이 올라왔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뭘 반영을 더 하시나요, 추경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추경에는 설치 지역을 220개 시도, 시군구로 모두 확대하는 거고요.

○김예지 위원 그것 외에는 없던데 세부내용은, 예를 들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 긴급하게 어려워지신 분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지난해 제가 예산 때 지적했던 그대로던데 혹시 변화가 있나요? 제가 못 읽은 건가요, 자료를 늦게 주셔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그냥드림이라고 말을 한 것은 소득이나 본인의 빈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그냥드림이었고요.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좋은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고 방문형이나 아니면 배달형 같은 서비스로 그걸 보완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지침에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예지 위원 보완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긴급추경이고 이미 주민센터, 긴급복지시설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서비스, 돌봄서비스, 민간 후원체계 이런, 그러니까 전달체계가 있는 체계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센터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센터는 어디를 근간으로 해서 늘리실 예정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운영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주민들이 오기 좋은 데 또는 사회복지관 같은 취약계층이 오실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김예지 위원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있는 전달체계를 이용하시고 그 인력을 이용하실 예정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복지에 꼭 들어가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정말 긴급한데 더 긴급한 사각지대를……

지난번에 제가 활동지원 얘기할 때도 동의하지 않으셨던 바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찾아가기도 어려운 분들은 이런 서비스도 아예 못 받고 그냥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긴급하게 세워진 추경안에는 디테일은 없고 똑같이 해서 그냥 센터만 늘린다는 게…… 정말 긴급한지 한번 다시 고려해서, 개선책을 제가 지난해 예산 때도 드렸지만 정말 이동도 어렵고 조금 더 어려워서 아예 여기까지 접근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식재료들이 간편식이나 이런 위주로 돼 있던

데—그냥 아무거나 가져가게는 안 하시겠지만—물론 그것을 다 챙겨서 넣어 놓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생활에 주의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조언이라든가 상담을 먼저 1차부터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지침 개선을 이번에 하시는 김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다 동의하고요. 접근성 개선에 대한 문제 또 제공하는 것도 좀 더 건강한 식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들은 저희도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시범사업이 4월까지 진행되면서 평가하고 사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보완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보완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 내용 좀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면 제가 보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다음에 3월 23일 날 장애인시설 색동원 있잖아요. 거기가 인천 강화군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 한 건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됐는데 계속 이분들 미루고 있는데, 지금 자립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이 추경에 예산 반영이 1도 안 됐던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색동원은 지금 시설 폐쇄 처분은 됐고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은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유예 주시면 계속 유예하고 계속 운영하는 거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33명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원가정으로 돌아가셨고 나머지 서른두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소통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계속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립지원 등을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김예지 위원** 종사자 학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학대받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야말로 시급하게 옮겨야 되고, 이런 거야말로 긴급한 추경에 올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혹시 예산에 룬이 있는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것 서면도 올렸거든요. 장관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보고요. 지자체랑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것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돌봄, 이것을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년인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났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예, 끝났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끝났습니다.

○김예지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지금까지 제가 복지위 2년 하면서 보니까 마이크를 켜 드리지는 않고……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 청년일자리, 사회복지시설 돌봄사업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해 와서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격요건이라든가……

보니까 돌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 관련도 있고 노인 학대, 노보전에서 일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돌봄도 있었고 돌봄청년에 대한 돌봄도 있었고 아동돌봄도 있는데 자료를 늦게 주셔서 제가 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전혀……

돌봄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제가 장관님—저는 안 보이지만—보듯이 ‘너 잘 있느냐’ 이라고 보는 게 돌봄이 아니잖아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턴 사업으로 넘겨도 되는지, 자격요건도 전혀 없고.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없던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사항 잘 알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행정 지원의 업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돌봄 업무도 해야 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나 다른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해서 선발하고 그게 인턴에서 정기 고용으로, 사회복지 일자리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특히나 사각지대가 자립지원청년들,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인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다시 일하면서 동료 상담 등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건, 거기에다가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해서 선발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내용도 공감합니다.

○김예지 위원 준비하셔서 늦더라도, 추경 다 끝났어도, 본회의 통과됐어도 좋으니까 이런 개선 내용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자립준비청년들이 일경험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좀 더 우대하게끔 그렇게 채용조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행하겠고요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장관님,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유가·물가 불안이 국민들의

삶을 압박하는 비상상황에서 민생 대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취약한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김남희 위원**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 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의 시설에 총 629명의 청년 인력을 8개월간 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게 일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있고 또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일경험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 청년들은 어떻게 선발하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청년은 아마 지역별로 인력이 배분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자격조건, 우대조건 같은 것을 선정하고 선발을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김남희 위원**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지자체별로……

○**김남희 위원** 지자체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다만 노인 학대나 정신건강, 야간 아동돌봄, 자립지원 같은 영역은 취약한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장 특수성을 생각하면 충분한 준비 없이 청년을 투입할 경우 현장의 안정성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설당 한두 명 정도의 행정 지원하는 인력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최대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교육과 업무에 대한 지침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나 취업 희망자 중심으로 해서 특수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감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청년들은 8개월 뒤에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8개월 뒤에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청년취업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도록 하겠고. 또 사회복지 일자리에서도 일자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설계를 잘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는 끝나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거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또 편성하면서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8개월 뒤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과연 청년들이 이 자리를 지원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릴 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지나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지요.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하지요.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지요.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구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김남희 위원** 대통령께서 2025년 12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일자리에 대해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사회복지 일자리가 취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의 복지인프라에서 11개월 지나면 해고하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고용하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노동부에 점검하라고 하셔서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노동부 중심으로 전체 부처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돌봄 인력이나 사회복지 인력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기회에 잘 조사하고 대책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인력난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이 진로를 이어 나가야 하고요. 사업 종료 후에도 단기 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와 협의해서 후속 고용 연계하는 방향 계속 만들고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해야 하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사업이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잘 운영이 돼서, 그 인력 부족이 8개월 지나면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대책까지 단기 일자리로 소모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소병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당장 어쨌든 이런 에너지 위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보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남인순 위원** 우리가 중동의 원유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었던 수입선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앞으로 더 보

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부도 아마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어쨌든 에너지비용이 올라가면 생산비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결국은 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복지부의 추경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의료급여에 해당되어 있고 지금 전체 추경이 상당히, 그냥 유가보조금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드러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또 국민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을 살펴야 되는 복지부로서는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장관님께서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이것이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으로 갖고 오신 것 중에서 그냥드림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개수를 더 늘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 와서는 그냥 드리지만 2차 이용 시에는 상담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달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지요?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전담 인력은 현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나 자활일자리하고 연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도 이 코너가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시는 분들 이것저것 안내해 주기 바쁘지 이런 상담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상담 인력을 그냥드림 코너에 1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하게 되면 약 12억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좀 안 된 상황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27일부터, 지난 금요일이지요. 이제 통합돌봄이 시행이 됐습니다. 현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전담조직 설치라든가 전담인력 배정, 조례 제정, 재택의료센터 지정 운영, 여러 가지 추진 상황을 계속 체크는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일일 보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일일 보고 받고 계세요?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초기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점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한 점이 뭔지, 뭘 보강해야 되는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 제일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예산이겠지요.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통합돌봄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통합돌봄 관련한 재정 확대를 하기 위한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에 약 3000억 정도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고 하는—인프라는 별도로 하더라도—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봄 재정 확충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최근에 현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장관님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 유기 사건을 봤을 때 지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발굴 선정 기준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점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점검하고 있고요. 의료 이용을 안 한 아동들은 위험도가 낮게 평가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필수 절대 지표로 변경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모형을 보완해서 발굴의 정확성도 높이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유발된 대외여건 악화로 물가상승과 민생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한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신속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백종현 위원** 복지부 추경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은 국민이 단기간 내에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체계 확충 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 역시 즉각적인 민생 지원이라기보다는 인력 확충 중심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또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AI 고객상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 보험정책사업관리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급하게 해야 해서 같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시급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돌봄 인력 지원이나 위기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고용 상태가 어렵고 특히 쉬었음 청년, 고립·은둔 청년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종현 위원** 결국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간 민생 대응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정책이나 기반 확충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더 우려되는 부분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성과 검증 없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심사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님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물품 지급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복지연계가 맞다고 보시는 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당장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그걸 계기로 복지하고 연계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현 위원**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이용자 7만 3711명 중에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7241건으로 연계 비율이 9.8%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약 90%는 복지 연계 없이 물품 지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복지 연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는 저희가 1차 이용은 별 장애 없이, 본인의 빈곤에 대한 증명 없이 긴박한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종현 위원** 또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면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에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복지부에서도 추진 방향에 있어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모형을 보완하는 것으로 제시됐지만 지금은 연구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확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달에 이미 마무리됐지만 해당 연구용역은 본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과업을 확장시켜 연구용역 기간을 오히려 연장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께서 이 순서가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 확대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 때문인지 또 무리하게 추진한 건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답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별 격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에서는 또 이런 사업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50개를 확대하는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이 시범사업을 좀 더 어떻게, 아까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맞게끔 잘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본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복지 연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업 성과와 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먼저 투입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 복지부 추경안은 민생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즉각적인 효과보다 사업 확대나 기반 확충 중심으로 편성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해 봤는데 이용자들의 많은 부분이 60대, 70대, 80대 고령층이십니다.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높고 또 생계형범죄가 노령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생계형범죄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요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꿔 주는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유념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백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 위원** 강남갑의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을 전쟁추경이라고 그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용의 면면을 보면 절대 전쟁추경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전쟁과는 무관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매표용 현금 살포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냥드림 사업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답변에 보시면, 장관님께서 사업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업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사업장의 위치를 어디에 둘 건지와 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할 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거는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개선이 저는 평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드림사업을 보면 일반인도 굉장히 이용이 많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말 복지사각지대의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 있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은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저희가 1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허들을 만들지는 않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을 평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 이 사업의 목적인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계속 평가하고 또 보완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계속 일일 보고와 사업의, 받아 가시는……

○**서명옥 위원** 그냥 단순하게 실적 위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평가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명옥 위원 자, 그러면 평가 진행 중에 있다 하시니까 오늘 끝나면요 지난해 12월부터 하셨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4개월 정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본 의원실로 내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지금 이것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의 취지는 아시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데이터분석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그다음에 본사업으로 넘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 한 지 3~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더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장관님, 여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5월부터는 본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게 150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 다른 시군구에서의 그런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서명옥 위원 장관님, 본사업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사업 하기 전에 시범사업 한 결과를 저는 다 데이터분석을 잘해야 그다음에 본사업도 성과가 나고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서명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기청년 지원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청년미래센터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명옥 위원 그게 지방하고 매칭펀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런데 혹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거는 올해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돼서 실은 전국에 같이 시행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 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명옥 위원 예산 확보가 충분히 못 하다는 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도 신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때는 법이 시행되기 전 상황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는 법이 시행돼서 전국에서 청년미래센터 같은 고립청년이나 지원이 필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장관님,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지방비가 100%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에도 지금 복지사업이, 매칭펀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방마다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매칭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는데 지방하고 협의를 안 한다? 정말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시지요, 지방분권, 역할 강화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하고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하고 매칭펀드 사업은 협의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방하고의 협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동안에 예산을 올해 4개밖에 반영을 못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 장관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매칭펀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것도 지방보조금법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 사업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지난 월요일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정은경 장관님과 이스란 차관님을 비롯해서 장애인정책국 국장님 이하 실무자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전에 본회의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전쟁추경은 무엇보다도 처리 속도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나 마나 이런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민생 회복에 불가능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유의 위기 국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복지부를 비롯해서 국회와 정부가 추경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굶지는 말자, 배는 굶지 말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그냥드림 사업부터 의료급여, 긴급복지, 돌봄인력을 비롯해서 위기청년 지원 등에 대한 필수 예산을 증액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부안에서 장애 예산이 빠졌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 예산에도 필수불가결한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늘 부족한 반면에 사건들은 계속 늘고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서미화 위원 색동원 사건만 해도 거주하고 있었던 장애여성 전원이 성폭력에 노출된 상황이었는데 지역의 수사기관이 시설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었던 학대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사건이거든요. 경찰이나 지자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색동원 같은 심각한 상황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대 대응에 있어서 장애 감수성이나 전문성이 높은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장관님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서미화 위원 그렇습니다. 점검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없으면 눈치조차 못 채는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2024년 기준 장애학대 사건 신고 건수가 이미 6000건을 넘었고요. 여전히 곳곳에서 포착되지 못한 학대나 성폭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색동원 현장이 정말 전쟁 피해자만큼이나 너무나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점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학대 사건들이 더 은폐되고 학대나 폭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전국 19개 권익옹호기관이 있지만 현재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경찰에서 요청해도 제시간에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금 시급하다, 빨리 예산 좀 반영해 달라, 늘 이렇게 말을 해 왔어요. 그런데도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더 시급한 거지요,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됐고.

제가 현장과 소통을 해 보니까 사실 예산도 많지 않아요. 4억 5000 정도면 지금 2명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6년 당장에. 이 해당 사업 증액을 반영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전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좀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김예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색동원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되면서 장애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다른 시설로 뱅뱅이를 돌면서 당사자나 가족들은 또 학대나 성폭력이 그 저 없기만을 바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도 정원이 대부분 다 차 있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도 몇 곳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상황인데 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히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담인력이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은 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필요합니다.

○서미화 위원 제가 김예지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오후에 예산심의에서 심도 있게, 저도 이 내용이 이제야 전달이 돼서 파악이 잘 안 됐는데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복지부에 지시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예산심의 때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통합돌봄 준비에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로 긴급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보의가 지금 재난 상황 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담공무원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의료취약지역에 지금 돌봄시스템이 거의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토론했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보의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하고도 잘 상의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필요성은 공감하고 국방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다른 분야별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좀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려면 어쨌든 수많은 민원이 생길 테고……. 지난번의 경우는 선별 기준이 90%였는데 지금 70%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대비해 보면 25년도에 90만 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적어도 배 이상은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무래도 기준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상담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담인력하고 AI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편성으로 볼 때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우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문제 하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민원대응 예산의 불용을 지적했는데 결국은 인력들이 충분치 않게 공급된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작년에 했을 때는 임금 수준이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인력들이 있어서 불용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요.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게끔 내역 조정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에 쓰는 비용을 적절하게, 어쨌든 민원이 예상되는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지난 본예산 때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검토했는데 예결위에서 미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고유가 시기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어르신들의 식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추경에 국비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경로당 부식비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비가 1260억 정도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에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식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어서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는 개소당 600만 원, 울산은 100만 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 이번 추경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전쟁 이전부터 예고가 됐고요. 우리가 전쟁추경이라고 지금 쓰고 있지만 기획된 선거용 추경이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 추경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따질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만 먼저 짚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지요. 장관님, 이 신규 사업 목적이 대체인력 한시 투입이 아니고 청년경력 형성 쪽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행정 지원과 또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에 일경험과 일자리로 연계되게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인턴이라는 게 제대로 이 제도가 활용이 되려면 사실은 본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애초에 설계가 돼야 되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도 복지부 쪽의 건보공단이나 질병청이나 식약처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 실적을 보면 많게는 40% 정도가 중도에 그만둬 버립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 이번 사업에서 좀 세밀하게 챙기시려면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경력,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무요원, 우리 복지부 쪽 관련해서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대기하다가, 몇 년씩 대기하다가 전역해 버립니다. 전혀 활용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부터 푸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병역의 형평적인 이행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 1만 명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떠돌다가 그냥 전역 처리되는 이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에 넣어서 하는 관심을 가져가실 게 아니고 병무청하고 제대로 상의해서 가지고 이걸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걸 병역의 대체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끔찢끔 추경에 몇십억 넣어 가지고 청년경력 얘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부터 좀 짚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와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지금 복지부 추경 중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당 기간 오래전부터 이쪽의 지출이 폭증될 것이 예상되어 왔고 이번에도 제가 복지부에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봤더니 추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트렌드에서 지난번하고 이번에 맥스로 예상되는 것의 중간값 정도로 지금 추경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대규모로 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추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장관님, 정책 개론 보면 재정적 책임성을 영어로 리스폰서빌리티(responsibility)라고 쓰지 않고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씁니다. 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뜻은, 우리말로 저보고 개론 책 바꾸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재정적 설명 가능성입니다, 재정적 해명 가능성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보료를 납부하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계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게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걸 보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올린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대통령실 근무할 때 이걸 꼭, 기초생보 좀 넉넉히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챙겨야 될 게 다른 급여는 상관없는데 의료급여는 이게 자칫하면 의료 쇼핑으로 얘기되는 의료 소비 남용 쪽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중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저소득계층한테 제대로 주려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문제가 동시에 풀리지 않으면 지출을 아무리 늘려 봤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이견 추경을 건너뛰어서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건보 운용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국감 때 또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 잠깐 드릴까요?

○**위원장 소병훈** 예,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안상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할 때 그런 자격증이 있고 그게 본 일자리로 연계되게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이나 쉬었음 청년들의 일경험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율을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무요원은 좀 더 점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개선되게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저희도 정확한 추계의 중요성, 남용의 방지에 대한 중요성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의료급여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어서요 말씀 주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한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관련 부식비와 냉난방비의 50%를 정부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냉난방비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5월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난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류가격 인상으로 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하는 지자체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추정해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 증액이 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민생복지반에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냉난방비 집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이개호 위원**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이런 경우는 예비비에서도 일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필요한 경우는 예산 확보 방안을 또……

○**이개호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획예산처랑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식비 문제, 장관님께서도 지난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법적인 정비가 완비되어서 이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일부라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잔뜩 가졌는데 추경 여건상 안 된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마는 다소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액이 보니까 국비 50%를 전제로 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 4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경로당 지원 예산이 올해부터는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으로 해서 지방 쪽에서 편성되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것 개요 받아 봤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오늘 심지어 오후에 예산소위 하고 전체회의도 같은 날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부 쪽에서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그렇고 사업별로 보고가 돼 있는데 혹시 재정집행의 성격에 따라서 따로 정리한 자료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재정이 얼마고, 이 사업 내용을 떠나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얼마고 그런 형태로도 따로 집계를 하시나요, 재정 집계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주영 위원** 그렇게 안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전체 재정 중에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던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단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재정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민간사회복지자원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보험정책사업관리에서도 단기 상담인력 채용 이런 게 있고요. 이 일을 해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고 단기로 활용하는 이런 내역들이 부분마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아주 엄격한, 정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서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단기일자리고 현금을 안 준다 뿐이지 사실상 일자리로 보이는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제공하는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큰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체 재정 집계 얼마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청년경력 형성, 고립·은둔 청년도 일경험을 주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복지에 대한 행정적인 것도 다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의료에 있어서도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확충,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실제로 아무리, 심지어 의사조차도 그 지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제대로 교육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복지도 행정도 지역의료도 다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 ARS 답변을 인간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재정이 함부로 추계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도 이번에 60만 원씩 현금 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행정적인 소모성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 얼마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셉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복지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으로 넣는 거다. 그런데 이것 남의 주머니에서 빼서 중간에 흘리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넣어 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복지를 확대하고 싶으시고 실제로 통합돌봄을 잘 영위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신규 교육자들에 대한 것 자료를 정리해서 수지로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급여 사업, 진료비 미지급분 이거 계속 생기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예방접종(NIP) 미지급분 이런 것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줄 돈을 국가가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추가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보의 문제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모르지 않았는데 국방부랑도 협의 안 되고 기재부랑도 협의 안 되고 아무런……

이 소중한 자원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지역의료 기간제 공무원 전담인력 이렇게 해 놓으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편셋 배치, 진료소 통합. 지금도 공보의들 여덟 군데씩 순회진료 다니고 있어요. 그것 해결 안 되면서 무슨…… 전공의들이 이것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편셋 진료, 제일 어려운 데만 그것도 여러 군데 뽕뽕이 돌아야 되는 데만 보내겠구나. 앞으로 더 안 하겠지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시면 곤란하다. 깎을 수 있는 재정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이걸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추경에 이 예산을 태웠다는 것은 장기계획이 정부에 전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메시지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인력조차도 국방부랑 협의가 안 되는데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랑 협의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설득력 있게 대책을 만드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랑 회의한 내용까지 같이 추가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소병훈 예,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주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거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험정책사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기일자리가 맞고요. 민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상담인력을 단기로 쓰겠다라는 것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돌봄 보조인력은 단기성 사업은 아니고 8개월 정도 후에 안정적인 고용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 우선채용이나 마찬가지로인데, 그런데 아까는 고립·

은둔 청년의 일경험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정부가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일경험으로도 활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담아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쉬었음 청년이나 또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년 중에 일자리가 없었던 분들을 일경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그런 목적 또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이 부족했던 행정에 대한 보조인력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교육이나 배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저희도 확보를 해서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에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공보의 부족 문제는 실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현재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군의관으로 차출하지 않으려고 차출 규모를 줄이다 보니 전체 공보의 배치가 올해 92명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농어촌의 일차의료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란 큰 틀 속에서 공보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은 저희도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목소리 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윤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쟁추경이라고 명명을 했지요.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의료급여 예산이 2828억 증액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최보윤 위원** 이 사유를 보면 경기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가중과 의료급여수급자 급증 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관님, 이게 갑자기 발생한 경기둔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예견된 증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추세도 있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의료급여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위원** 장관님 말씀처럼 수급자는 이미 꾸준히 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더욱이 2025년에 발생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약 2000억 원이 있었고 2026년에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사항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미 쓰인 만큼 하반기에 또다시 재정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본다면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급자 꾸준히 늘고 있었고 이런 예견된 증가에 따른 것은 갑자기 발생한 경기둔화 때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전쟁추경에 넣기는 매우 맞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우려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관님, 이 부분을 또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했던 지출이 계속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으로 되는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것을 또 전쟁추경이라고 해서 메우는 것도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매년 겨울이 오지요. 그러면 겨울이 오면 추울 걸 알고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갑자기 긴급 난방비를 쏟아붓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랑 수급자 증가가 계속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산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미지급금이나 그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의료급여 말고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긴급복지 예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 신청해도 탈락하거나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연말에 좀 부족한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보운 위원** 대통령께서 이번 추경을 전쟁추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응급 처치 예산은 그 정도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일 수 있거든요.

추경에서 보면 이번에 긴급복지를 또 쪼는 이유는 예산 추계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이렇게 긴급복지 같은 생계가 끊긴 위기가구를 위한 그런 부분은 잘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예측 실패로 구멍 난 의료급여에는 2828억 원을 배정했는데 긴급복지는 고작 131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추경이라면 또 당장 무너지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이번 추경의 부분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의 우선순위에 맞는지 그런 것도 깊이 되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실 때 긴급성과 국민의 체감도를 먼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시급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예산이 긴급복지, 일상돌봄, 긴급돌봄 이 세 가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증원을 요청드렸는데요. 모니터링하면서 좀 더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병훈** 최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복지의 축이 있고 보건의 축이 있지요. 이번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보면 복지예산이 있고 또 보건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지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그 시각에서 그러면 어떻게 편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부 추경예산 3263억 중 보건 분야, 생명과 관련된 보건 분야는 83억, 2.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복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면 83억 중 무려 60% 이상인 50억은, 아시지요? 행안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

급을 위한 대상자 선별 및 상담 인력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보건 분야 예산으로 이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관련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국민들께서는 마치 83억이 그 비용에 들었다고 오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있고요.

국민 생명·건강, 보건 안보의 실질적인 보건서비스에 그러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50억을 빼면 전체 보건 분야 추경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를 한 번 더 자세히 본다면 지금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정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급 중단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의료 소모품 수급 위기에 대한 복지부 예산, 그러니까 추경예산의 1% 중 얼마가 배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급 부분은 대부분 아마 건강보험 수가로 일부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한지아 위원 0원입니다. 그렇지요? 34억 중 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전쟁추경이라고 하셨는데 국민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원이 책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34억 중 아까 공보의 부족이 대체인력으로 21억, 시니어 의사제·지역필수의사제 13억, 인력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료 소모품이 없으면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 맞지 않습니까? 소모품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한데 나프타로 인한 추경은 왜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나프타 관련된 물품은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한지아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산업부가 지원 추경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부는 할 일이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지아 위원 주무부처로서 본연의 임무를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이 멈춘다면 그 책임은 산자부가 지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1% 중에서 0원이 그거에 대해서 책정됐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소모품은 전략 물품이지요. 의료 소모품 단가 상승에 따른 병원 현장에 대한 부담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원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됩니다. 의료 소모품 생산 기업 원료 수급 안정화 장려금, 거점별 필수의료 소모품 긴급 비축 운영에 대한 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 라인 긴급 가동 지원금 편성 등에 대한 고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전략 의료물자 비축계획, 그거에 대한 건 있습니까? 몇 개월치 비축 예정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약품 원료 같은 경우는 비축계획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머

지 전쟁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지아 위원 없지요?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장기적인 플랜과 비축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프타 관련해서 의료 소모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모니터링과 사재기만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보건복지부가 생명을 한 축으로 하는 부처로서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종료가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그야말로 우리 보건 안보와 직결된 미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는 WHO의 글로벌 의료 공급망 및 물류허브와 같은 그런 체계에 같이 의견을 주고 예산도 우리의 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하청 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 안보,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게 보건복지부고 타 부처 해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망은 안 됩니다. 능동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보건 분야에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 의료 현장의 결핍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는 미래 보건 위기까지 대응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부는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부처가 아니라 보건 안보에 있어서는 주축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의 근간인 소모품 수급 안정화 대책, 의원실로 따로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 짧게 드릴까요?

○위원장 소병훈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과 전략적인 비축이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지금 현재 정부 내에서는 비상경제본부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가 하는 역할들을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복지부가 산업부의 하청이나 이런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부 또 생산이나 인허가에 대한 건 식약처, 모니터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가 각각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서 그 의료 소모품이 현재로서는 이게 만약에 중동전쟁이 조기에 종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복지부가 살피고 그걸 산자부에게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의견은 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수액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수적인 제품인데 수액제 백이 부족한 경우에 생산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나프타에 대한 공급을 늘리게끔 산업부랑 협의해서 조정해서 6월 말까지는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모니터링과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해서 최대한 품목과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한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장관님, 국가책임 입양체계는 실패했습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입양이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송구하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 7월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였습니다. 다른 아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21대 때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믿었습니다, 준비 잘하겠다고.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가 281명,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2배인 602명입니다. 그런데 아기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정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아니, 본 적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김미애 위원 송구한 게 아니라 본 적 없지요?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탁상공론,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방증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세요. 청와대 앞에 입양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 달라고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해외입양 제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이렇게나 있고 아기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하면서,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전혀 안 되는 대책입니다!

그러면 제게 하나 약속해 주세요. 저보고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서 일하라고 해 주세요. 일할 그 권한을 주시면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책임은 입양법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대통령께서도 지난해에 뭐라 했습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다,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허언이지요. 입양 안 되고 시설에 있게 하는 정책이 해외입양 제로 정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해요? 29년에 제로 하려면 281명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보호대상 아동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결연한 아동이 11명밖에 안 돼요. 가정법원의 허가, 올해 몇 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0명 안 될 겁니다. 280명 언제 합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아기를 물량이라 표현합니다. 입양 허가를

소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어떻게 그게 송구합니까? 국가의 잘못으로, 국가의 무책임, 불성실, 잘못된 입양시스템 운영으로 아기들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시설에 있어요. 300명 가까운 아기들이 시설에 있어요!

장관님, 자녀 키우실 때 병원에 입원한 적 있지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없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수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내 딸, 내 아들로 만들어서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이것보다 중요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재정법 89조의 사회재난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추경 편성을 왜 합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손을 놓고 있어서 사회재난입니다. 국가재정법 89조 1항 1호의 사회재난이에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시설에 300명 가까운 아기들을 방치하는 게 재난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왜 편성 안 했어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인력은 지원하면서 입양, 민간이 할 때는 40명 넘게 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11명이 합니다. 전문성 있는 직원 딱 2명입니다.

제가 입양할 때 2011년에 신청하고 4개월 만에 아기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 입양체제로 전환했는데 각종 절차들이 지연되면서 입양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각 단계별로 어디서 병목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단계별 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미애 위원 단계별 대책, 그것 대책 아닙니다.

입양이 크게 몇 단계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9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미애 위원 9단계 아니지요. 2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한 단계, 가정법원이 하는 한 단계. 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시간을 때우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운운하는데 이재명 정부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장관 취임할 때도,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저.....

○김미애 위원 뭘 점검했습니까? 아니,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호통치고 오만 걸 다 하면서 어떻게 말 못 하는 아기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냉담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딱 하나 차이지요. 지방선거의 유권자가 아니라는 그 차이입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왜 추경에 편성 안 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저희가 단계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월 걸립니까, 추진대로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예,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하신 대로 가정환경조사를 하거나 입양 실무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조사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13명밖에 없는데 13명 정도를 더 늘려서 신속하게 가정환경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경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예산을 사용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보장원 인력도 부족한 게 있어서 수시 직제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교육 기회를 늘린다거나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거나 또 분과위원회도 더 자주 열어서 그 단계를 단축해서 병목을 줄일 수 있게끔 최대한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하나도 안 했다는 그것을 방증하시는 거예요. 예산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공적 입양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어떻게 해요? 작년부터 했는데, 그 전환은 가정환경조사예요. 입양 전문성 있는 직원도 없으면서 아기들은 물량이라 하고 입양 허가를 소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

○**위원장 소병훈**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예, 의사진행……

○**한지아 위원** 김미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소병훈** 위원장의 관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장관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깊이, 저희가 부족한 점 알고 있고요. 계획 세운 대로 잘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필요한 부분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기획예산처장관까지 만나서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이 하세요, 그 일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병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서영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종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소위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병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말씀하세요.

○한지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관련한 건데요.

위원장님, 오전 전체회의에서 저는 식약처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식약처의 이런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자료제출 하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금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여전히 제출이 어렵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액팩, 의약품 포장지 등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 불안 품목과 수술용 장갑,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의 재고 현황 및 소진 예상 시점 등의 자료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나아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 부처에 대해서 전쟁 영향 품목의 선제적 식별, 일별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이상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과의 상시 소통을 명확히 주문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식약처가 대통령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식약처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엄중히 질책해 주시고 즉각적인 자료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한지아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랄까? 예컨대 제조사랄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알아서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면 한지아 위원님한테 직접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해서 말씀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설명 안 했나요?

○한지아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제출이 어렵다라고만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리고 아마 한지아 위원님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그런 자료 요청을 했나 본데 그게 좀 민감한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자료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알아야 되는 자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민감한 부분은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그렇지요. 열람은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서영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811억 1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 7300만 원 등 총 3445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서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025년도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부족분 2245억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업에서 ‘그냥드림 코너’ 확대 운영 관련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사업은 새로운 입양체계의 중추역할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하여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유류비 증가를 반영하여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고물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부식비 지원 예산 6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48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인천 색동원 거주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8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보험정책사업관리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비목 중 11억 5200만 원을 상담인력 인건비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하

였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근무수당 신설분 9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의료급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긴급복지 사업 시 모니터링 강화,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총 13건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서영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서영석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딱 30초만 제가 당부를 좀……

○위원장 소병훈 의사진행……

○김미애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소병훈 말씀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장관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드렸는데 사실상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일을 하라고 맡겼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장관님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미애 위원 지금 추정 취지에 맞지 않는 상당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는 여기에서 가장 급한 것이 말 못하는 아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동권리보장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직접 나서 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편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8번, 보험정책사업관리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소위에서는 전산인프라 구축은 AI 관련해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사업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중의 일부를 민원대응 인력 인건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걸로 의결을 했는데 지금 잔액이 그대로 전산인프라에 17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어서……

○서영석 위원 AI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설명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건 빼고 그것을 인건비로 전환하는……

○김미애 위원 스토리지 확보 예산만 남겼다 그 말이구만.

○안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스토리지 확보라는 것은 AI 소프트웨어가 일단 된 다음에 거기서 용량이 업그레이드된 것에 의해서 필요시 이게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안 하고 하드웨어만 더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제가 확인한 거랑 이게 내용이 너무 달라 가지고……

○이수진 위원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차관입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병훈 아니, 소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아까 정리된 것은 인건비 예산의 경우는 443명으로 늘어나서 그 증액분을 인건비로 돌렸고 나머지 AI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고 2억 82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스토리지 예산 14억하고 합쳐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소병훈 2차관님, 더 좀 하실 말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소위원장님 답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소위 참고자료 26쪽이었는데요. 제가 당시 서영석 위원님·이수진 위원님 안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그게 수용이 되었다고 그렇게 심의 결과를 이해합니다.

○안상훈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 스토리지 추가 확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도 지금 추가로 원래 필요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스토리지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조달 과정에서 시간은……

○안상훈 위원 아니, 뭐에 대한 스토리지인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민원량 증가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기억용량 내지는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지는 필요하다고 했고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금 스토리지를 확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 구축, 민원대응에 대비한 업무 데이터 구축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스토리지 구매 등은 남겨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소병훈 더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수와 부대의견 등의 자구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리 국민,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정책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 예산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매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신속하게 예산을 확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병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김남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최보운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4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의 직원 및 보좌 직원과 국회 협력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종현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최보운 한지아

○청가 위원(1인)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복지정책관 배경택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노인정책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필수의료지원관 고희우

의료혁신추진단장 손영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0)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0)

이상 5건 3월 16일 회부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5)

3월 18일 회부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0)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1)

이상 3건 3월 20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3)

이상 7건 3월 23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2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2)

이상 6건 3월 24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6)

이상 3건 3월 25일 회부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8)

이상 7건 3월 26일 회부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0)

이상 3건 3월 27일 회부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2)

이상 8건 3월 30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4)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이상 7건 3월 31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0)

이상 8건 4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6)

3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2026. 3. 2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9)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3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84)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9)

이상 2건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의 요청**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1.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23) 철회 요구

3월 13일 회부됨

○예비심사기간 통보**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이 4월 7일 09시 30분까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4	-	3	-	-	13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1	-	5
질병관리청	-	-	1	1	-	1

○통지**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사임 통지**

2026. 3. 31. 국회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사임의 건이 동의되었음이 의장으로부터 통지됨